

2016년도 표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자』

(엡 4:12)

NEW **순복음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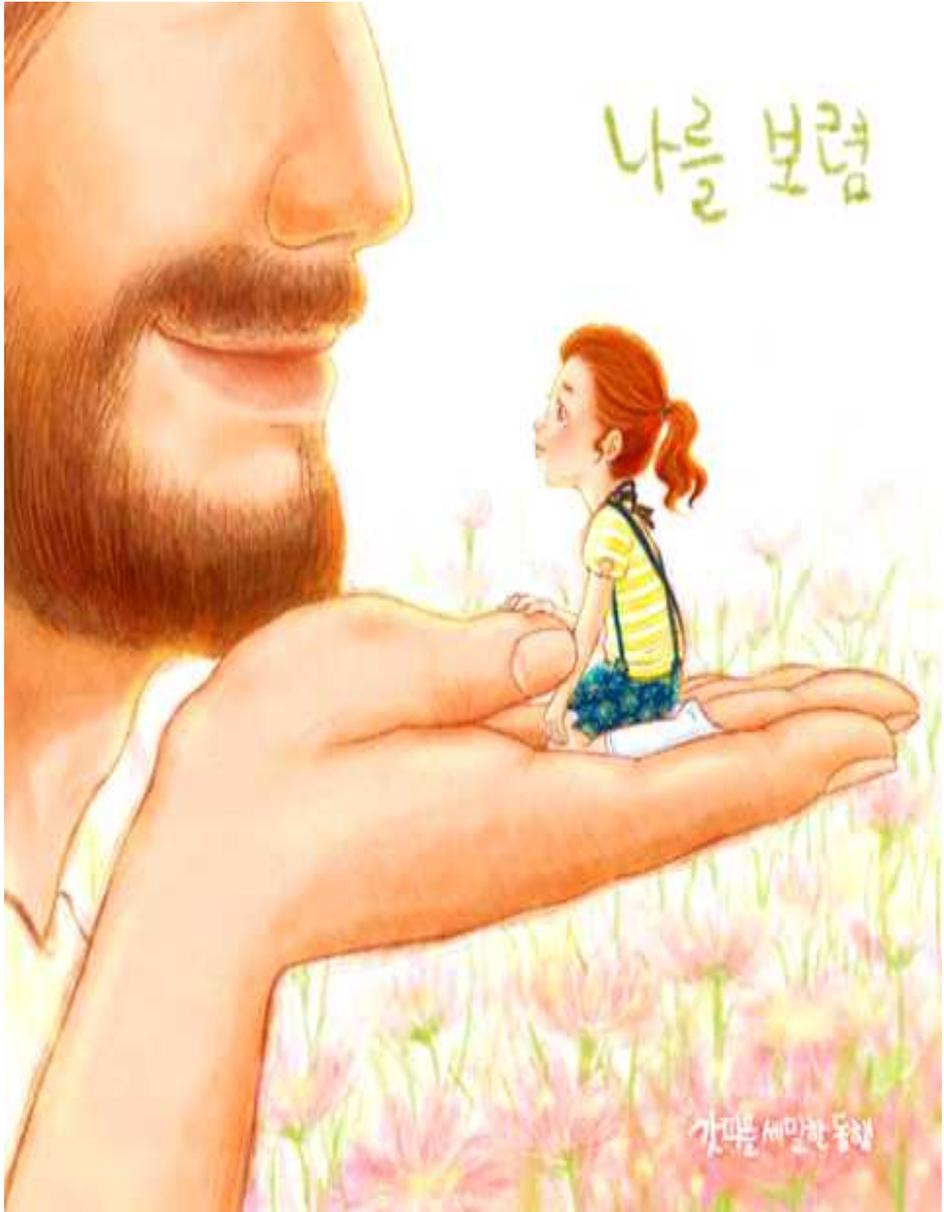
제6호

발행일 : 2016. 9 .30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이달의 신앙간증>

군 특집

충성 !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김성광** 청년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렇게 글로 쓰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보다는 지금 군 생활을 하면서 받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26세라는 팔팔한(?) 나이에 군에 입대하는 것이 정말이지 겉으로는 약한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을 보이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연히 남자라면 가야죠.”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다녔지만 정말이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나이가 완전히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때에 군에 가게 돼서 이것저것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없고 또한 피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있었고 저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입대해서 6주, 충북 영동에서 3주를 거쳐 자대배치를 받고 지금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지금 서있는 위치에서 지난 몇 달간을 쪽 돌아보니 그 시간을 지나 올 때 불평과 짜증과 때로는 극단적인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저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부대의 대장님이 합덕 분이신 것과 주님을 열심히 믿으시는 분이셔서 필요 이상으로 일개 병사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이번 달이면 저는 분대에 최고 선임이 되어 남은 복무 기간을 후임들을 이끌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지도력과 리더십 그리고 이해력을 더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최고의 큰 변화는 저의 가정입니다. 입대하는 시기에 아빠께서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기도해도 이루어 지지 않던 것이 군 입대라는 정말 썩음맞은 생각지도 않은 계기를 통해 아빠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빠의 변화를 통해 저희 가족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통해서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지난날에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히 군 복무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곳 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생각보다 제한되는 것도 많고 은혜와 감동의 시간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제 신앙이 도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복을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저희 각자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을 빨리 캐치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삶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리에서도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충성!!



<이달의 신앙 간증>

군 특집



필승!

당진순복음교회의 비타민 김연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울면서 교회를 떠나던 저에게 힘내라며 기도하시겠다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일일이 적을 수 없어 죄송한 당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진심어린



기도와 관심으로 지금껏 군 생활을 해왔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나눌 이야기는 이번 하계 수련회 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입대 전부터 2016년 하계수련회를 사모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참가하고 싶어서 6개월간 휴가를 참으며 주님께 기도로 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7월말이 되고 휴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7월 말까지 5분대기 임무수행으로 8월 1일부터 휴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수련회 시작하는 날에 맞춰서 출발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휴가를 올리고 결제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8월 2~4일, 8월 16~18일 두번에 걸쳐 휴가를 통제한다는 상급부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동적으로 8월 1일에 휴가를 올렸던 저는 휴가를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이었지만 수련회를 진심으로 사모했기에 인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상심한 마음을 최대한 숨기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고 휴가를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괜찮아 아들~ 실망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해 보자.”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기도로 지금껏 수련회를 준비했지만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린 저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껏 제 군생활의 매 순간순간을 역사하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를 주님의 전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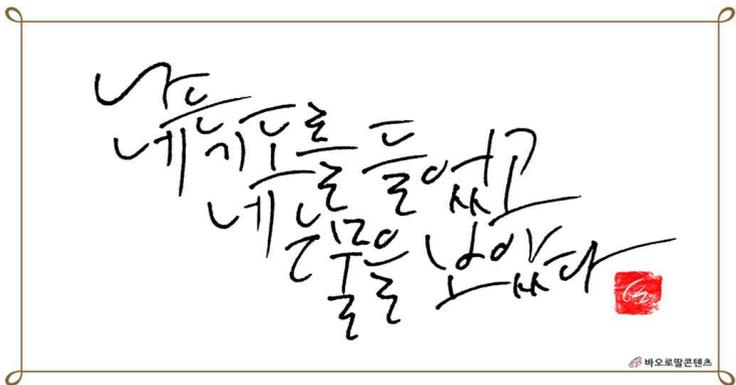
동시에 사모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휴가 나가기 3일전에 주님께선 또 한번 역사해주셨습니다. 상급부대 지시 사항이 8월 2~4, 8월 16~18일 통제에서 8월 16~18일 통제로 바뀌어서 전과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운이 좋다. 군대가 순간순간 말이 바뀐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강력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의 개입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수련회 첫 날 작년 수련회 때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가 있었는데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연훈아 내년이면 멋진 군인 아니 해병이겠구나. 덕분에 성도님들이 발을 짝 뺀고 주무시겠다.^ 그리고 내년 수련회에도 참석 했으면 좋겠다. 아니, 참석 할 수 있어!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기도하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찌면 주님께서 저를 1년 전부터 준비시키셨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 하면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기도의 힘' 입니다. 당진순복음교회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이곳에서 저부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휴가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진순복음교회 사랑합니다.♥

필승!



<성도를 알아가는 질문>

-박두식 청년-

1.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이며, 꿈은 무엇이었나요?

좋아했던 과목은 음악과 도덕이었구요. 꿈은 과학자나 선생님(교사)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루었네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음악을 좋아 했는데 주일학교에서는 성가대를 맡아 사역하는 중입니다.



2. 결혼하시면 부부를 이루게 됩니다. 부부가 되어 함께 하고 싶은 주님의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을 보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고 싶고, 가능하면 교사와 성가대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찾아보고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천하면서 나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3. 사랑하는 신부님을 위해 준비한 나만의 맛있는 특별한 요리가 있으신지요?

아직 특별한 요리가 없지만, 이런 질문을 받으니 나만의 특별한 요리를 꼭 만들어서 해주고 싶어지네요. 9월 표어처럼 작은 것이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4. 지금 눈앞에 타임머신이 놓여있다면 어느 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특히 다윗과 만나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5.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예비 신부님과는 매일 연락하시겠네요.

문자와 대화 내용이 궁금해요. 살짝만 공개 해 주세요.

잠자기 전에 항상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6. 신혼집을 계약하셨던 말씀 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꿈결 같으시겠네요 ^^.

신혼생활을 잠시 스케치 해주세요.

이제 부부로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어 주셨으니 서로 소통하여 생활에 오해나 다툼이 없도록 대화를 많이 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나아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때론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이겨내는 신혼생활을 하겠습니다.

7. 예비 신부님께 무슨무슨 선물을 해 주셨으며, 무엇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필자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이이기에 선생님 이야기 듣고 대리 만족 하고 싶네요.

커플링, 팔찌, 흰색 장미꽃송이, 지갑, 화장품, 편지 등의 선물을 해주었고, 특히 많이 사랑 해 주었습니다. 신애씨는 저에게 지갑, 부모님 티셔츠, 케익등 가족들을 살뜰히 챙겨 주었고 저의 회사 직원들에게 예쁜 과자 묶음을 준비해 주셔서 즐거운 간식 시간도 갖었습니다.

그런데 전 신애씨에게 선물을 주기만 해도 항상

행복하다고 말했지요.

8. 무슨 일이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본받고 있어요. 선생님의 삶의 좌우명이 궁금해요.

“모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것과 겸손하여 낮아지는 삶을 살자.”

9. 예비 신부님 어디가 제일 예뻐요? 성격 외모 다 포함해서요.

저는 다 예뻐 보여서 어디가 제일 예쁜지를 말하기가 힘드네요.(내 눈에 콩깍지 ^_^;;)

그리고 저랑 다르게 활발한 모습이 정말 좋아보였습니다.

10. 쌍꺼풀 수술이 이제 제법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수술 전과 후의 달라진 점을 말씀해 주세요.

수술 전에는 얼굴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었지만, 수술 후에는 자신감이 생기고, 항상 웃는 모습이 많아져서 좋았습니다.

11. 인생 30년 동안 신앙의 최대 위기 때와 최고로 좋았던 때를 말씀해 주세요.

최대 위기 때 늘 주님 말씀을 사모했는데 마침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성경공부를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사 한 분이 자기의 스승을 소개 시키는

순간 그 분의 얼굴을 마주쳤는데 그때 마귀의 모습으로 스쳐지나 제 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신천지에서 나오게 되었고, 회개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최고로 좋았던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12. 가족계획은 세우셨는지요? 자녀는 몇 명 낳고 싶으신지요?

가족계획은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녀는 2명 (딸,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더 낳고 싶습니다.

13. 박두식 선생님을 보면 純粹(순수) 와 順從(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몸과 맘을 깨끗하게 지키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글쎄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어떠한 일이트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마음과 자세” 라고 생각을 합니다.

14. 늘 암기하고 다니는 인생 말씀은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15. 교회서 교사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교사 일을 하며 느꼈던 하나님을 말씀해주세요.
- 아이들의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생활을 보면서 나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16. 9월의 말씀이 ‘도전하여 너를 새롭게 하라’ 인데요, 어떤 일에 무엇을 도전하고 싶으세요?
-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많이 읽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17.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지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참다운 크리스천의 모습이 궁금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배운대로 순종하며 실천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영적 생활입니다.
18. 모세가 늘 하나님께 의뢰하며 사건을 해결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선생님께서 하나님께 의탁하여 해결해 낸 문제가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장 최근 걸로요.
- 예!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직장에 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 걱정, 근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았고, 그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기하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19. 조금 상투적이긴 한데요. 당진순복음교회로 7행시 부탁드립니다.
- 당 : 당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 : 진실하게
순 : 순전한 마음으로
복 : 복음을 전하고
음 : 음성을 듣는
교 : 교회가 되기 위해
회 : 회복이 필요합니다.
20. 가장 존경하는 성경인물과 그 이유가 궁금해요.
-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다윗이구요~ 이유는 하나님과 항상 소통이 되고, 담대하고, 용감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과 순종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칭찬하는 습관!



교회 카페 옆 폐지 창고에는 각종 박스와 종이들, 낡은 옷가지와 쓰지 못하는 프라이팬 등이 어지럽게 쌓여져 있습니다. 한참을 쌓여 있었던 이 많은 잡동사니가 여러 헌신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먼지 폴폴 날리며 정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이재동 집사님께서서는 트럭에 한 가득씩 실어 나르시고 또 실어 나르시고~ 어찌 보면 모두가 기피하는 먼지 나고 지저분한 일이지만 오히려 얼굴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입가에 미소 지으면서 헌신하시는 재활용팀을 칭찬합니다. 장명희 집사님을 비롯하여 금영미 권찰님과 또 이영선 집사님, 또 이날 함께 하지는 못하셨지만 김희주 집사님 김정임 집사님께서 항상 수고 중이시고 재활용팀이 아니지만 항상 웃으며 기쁘게 봉사하고 계시는 구옥순 집사님과 송미숙 권찰님, 전수현 권찰님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헌신이 쌓여서 연말에는 선한 사업에 귀한 물질로 여러 연약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가치있는 봉사를 하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폐지 창고가 깨끗하게 비워졌지만 금세 또 가득히 채워지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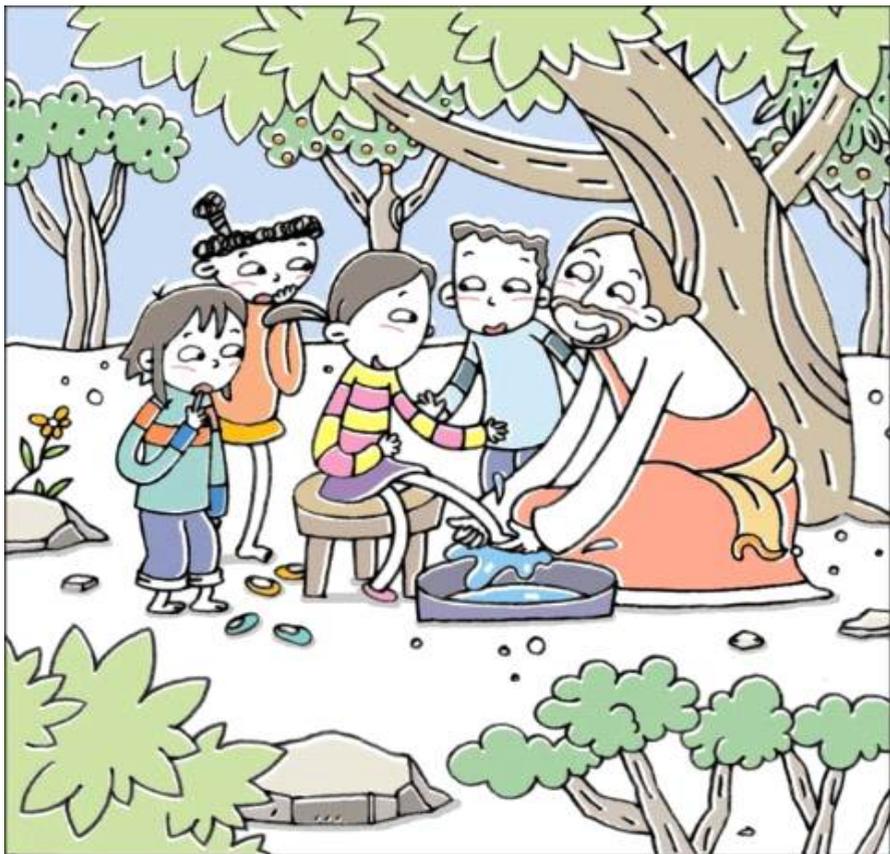
* 찬양예배 *

알렐루야 내 영은아 여오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오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아리로다 (시146:1-2)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사람 >





나가 주와 또 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오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요한복음 13장 14~15절]

숨은그림 : 병, 보온 물통, 물음표, 토끼, 11자형 자석

* 하나님의 전신갑주 - essay.25 -

*검-하나님의 말씀

검은 전신갑주 등에서 유일한 공격무기이다. 그러므로 유혹자 사단에게 대항상을 입힐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투구-구원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길 바란다. 하지만 구원의 혜택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

*용배-의로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 곧 "칭의"는 우리 몸을 위한 갑옷과 같다. 사단의 날카로운 영적의 칼날을 막아준다.

*아리따-진리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다. 우리는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한다.

*신발-평안의 복음

사단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따돌리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안에서 일 하도록 도와 주신다.

*방패-믿음

믿음은 사단의 핏박과 유혹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어이~사단!
어디 한번
뒤통수 보시지!!



nooriart@naver.com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이달에 issue>

패럴림픽을 아시나요???

패럴림픽은 국제 신체장애인 체육대회인데, 영국의 스톡 맨데빌 병원의 의사 구트만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1952년에 국제 대회로 발전하였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대회 직후에 열린 후로 4년에 한 번 올림픽 개최지에서 거행한다.

올해 리우올림픽이 끝난 직후 리우패럴림픽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그 어느 채널에서도 리우올림픽 처럼 중계해 주는 곳은 없었다. 그나마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패럴림픽이 중계되고 기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잘해주고 있다. 4년이라는 시간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그 어려운 훈련을 받고 메달을 획득하는 모습은 일반 국가대표선수들과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응원이 뒷받침되어지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출전한 자녀들과 모든 선수에게 주님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저에게 검은 가족표지의 성경책이 저를 비추는 맑은 '거울' 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을 때는 '성서'(책)에 불과했는데, 성경책에 열심히 나를 비추니 어느 순간 '성경'(거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내 모습이 처음 비추어 보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너무나 더럽고 불결하고 불완전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남의 실수를 그렇게 고소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사랑한다고 큰소리친 것이 실은 야심이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대단한 욕심과 탐심으로 뭉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야! 그 초라하고 비참하고 추잡스러웠던 내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성경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나도 온전해지자'(마 5:48) 나는 크게 손해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비평하거나 홍보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명예와 권세와 감투와 자랑과 같은 나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끊는다. 나는 많은 일을 하기 보다는 깊이 있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읽기만 하면 그것도 유익은 되지만 내 참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야! 성경책이 맑고 투명한 거울이 되어 나를 빤히 비추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내게 날개가 있다면



천길 벼랑 끝 100미터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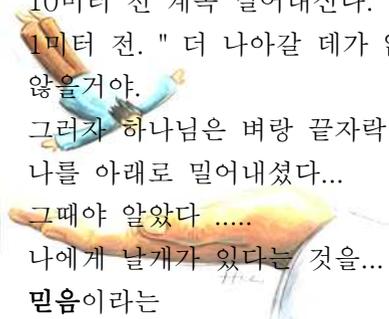
10미터 전 계속 밀어내신다. " 이제 곧 그만 두시겠지" 1미터 전. "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거야."

그러자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믿음이라는



시사용어 Briefing

웨딩 푸어(Wedding Poor)

- ◎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고 시작하는 부부
- ◎ 웨딩 푸어는 ‘결혼(Wedding)’과 ‘빈곤(Poor)’의 합성어로, 결혼 때문에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이유로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지’라는 생각과 함께 결혼식, 신혼여행, 예물·예단 등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기저기 많은 비용을 쓰다 보니 무리하게 빚을 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이 많아 졌다. 반면, 웨딩 푸어족이 증가하면서 합리적이고 실속있는 결혼준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타임 푸어(Time Poor)

- ◎ 일에 쫓겨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는 사람
- ◎ ‘시간(Time)’과 ‘빈곤(Poor)’의 합성어로, 잦은 야근 및 육아 등 때문에 항상 시간에 쫓겨서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현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타임 푸어족이 증가하면서 직장인의 60%는 연애할 여유조차 없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특히 워킹맘의 경우에는 낮에는 일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없고, 퇴근 후에는 육아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없어 늘 바쁘게 생활한다.

чек시트(Chexit)

- ◎ 미국의 달러화, 중국 위안화의 탈동조화
- ◎ ‘중국(China)’과 ‘탈출(Exit)’의 합성어인 체크시트는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의 동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위안화 약세로 압력을 받게 되면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다. 이에 따라 일부 신흥국에서는 금융위기가 초래돼 세계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불의 고리

- ◎ 환태평양 조산대
- ◎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 뉴질랜드 등 태평양의 여러 섬 및 북미와 남미해안까지 이어지는 고리 모양의 지진·화산대를 의미한다. 본 이름은 ‘환태평양 조산대’이지만 모양이 원에 가까운 고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불의 고리’라고 부른다. 최근 불의 고리에 해당하는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규모 5~6에 해당하는 연쇄 강진이 발생하면서 불의 고리의 움직임에 이상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대형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최근 불의 고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새 가족 소개>

-박성미 성도-

시어머니 김종숙 권사님의 권유로 몇 년전 우리 교회를 처음 접하셨던 박성미 성도님이십니다.

박성도님은 서울이 고향이시지만 열 살쯤 가족 모두 당진으로 이사하여 지금까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당진이 더 고향 같다고 하시네요.

당진이 제 2의 고향이라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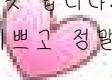
올해 42살이시고 슬하에 자녀는 셋!! 자녀 셋 인 것을 보니 우리 순복음 식구가 확실한 것 같아요..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 셋을 두었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나 느낌을 묻는 질문에 박성도님께서 결혼 전 교회가 아닌 성당에 다니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당과는 너무나 다른 교회 분위기에 큰 이질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우셨답니다. 특히 성도님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통성기도는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고 싫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하나로 섞이지 못하셨고 결국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구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자꾸 일어났대요. 가정에 문제라든가 기타 어떤 일이 있을 때 시어머니 되시는 김종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 기도 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요. 놀랍고 신기하고~~~ 이런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보면서 이번엔 우리 박성도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밀한 음성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에 발을 들였으나 이번엔 어머니의 권유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의 열정이 부럽고 통성기도가 어색하지 않으며 오히려 목소리 내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고백하시네요~ 지금은 아직 직장에 매여 있어 교회 많은 프로그램에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성경공부를 권유 받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상황들로 참여하지 못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가장 합당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긴 방학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신 우리 박성미 성도님!! 다시 오심이 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단이란 무엇인가?

이단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예수)이라 하고
기성교회와 하나되지 못하고 당을 지어 정죄하며
성경말씀을 가감(더하거나 빼고)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아래에 이단이라 불리는 단체들이 있으니 그들의 행태를 보면
이단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

- 1.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함
- 2.삼위일체 교리의 창작자는 사탄이라고 주장함
- 3.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며 천사장 미가엘로 최초의 피조물임
- 4.배타주의다른 모든 교회는 멸절될 것임
- 5.새 세계 번역 성경....이라는 자기들만의 번역본 사용

[통일교(문선명)]...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1.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며 성부로만 존재
- 2.하나님도 창조 이상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임
- 3.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존재임
- 4.기독교는 통일교의 형님으로 가인임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 타락에서 구원해 줄 재림주가 문선명임

[대한예수교 신천지교회{신천지}]

- 1.예수의 성육신과 신성까지 부인함
- 2.신약과 구약은 무효임
- 3.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만이 새언약이라고 주장함
- 4.자신들만이 구원 받는다고 함
- 5.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함

[만민중앙교회]

- 1.자신이 예수님과 하나되고 동일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2.자신에게 재림과 휴거를 알려주었다고 함
- 3.어떤 이들은 자신의 간증 책만 읽어도 막 치료가 된다고 하고
사진만 안고 자도 치료되고...
- 4.자신이 하나님을 부르면 오시는 분으로 묘사

[몰몬교(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1.성경은 유일한 권위의 근원이 아님
- 2.성경은 다른 몰몬교의 경전에 비추어 읽고 해석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 3.예수는 많은 신중의 하나임
- 4.예수는 신적 존재지만 독생자는 아님

[안식교]주장

- 1.예수의 유죄성을 주장
- 2.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
- 3.자신들이 14만 4천의 무리라고 주장
- 4.안식일 엄수 주장: 주일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며 주일을 지키면 짐승의 표를 받아 멸망하게 됨
- 5.예수의 재림 예언(1844.10.22에 1차 예언 후 1845-51년까지 매년 예언함) 1844년 재림 심판 후 은혜의 문이 닫혔으므로 화이트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
- 6.구약의 음식법을 주장함
7. 지옥은 없으며, 불신자는 죽으면 그 영혼은 없어짐.

[하나님의 교회(안중회)] 약칭으로 '안상홍 증인회' 로 불리고 있음

- 1.십자가는 우상임
- 2.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함
- 3.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은 예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안상홍 이라고 함
- 4.현재 기성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는 모두 마귀의 장난임



■ 가을 환절기를 대비, 면역력 높이는 음식은 무엇?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 나는 가을 환절기에는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바이러스 증식이 쉬워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 평소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먹는 것이 중요하데요. 가을 환절기를 대비해 면역력 강화를 도와주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타임지 선정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사랑 받는 마늘은 대표적인 면역력 증강 식품입니다. 한국인의 음식에는 대부분 마늘이 식재료로 사용되는데요. 마늘 특유의 냄새를 내는 알리신 성분은 살균, 항균 효능에 탁월하며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늘의 생리활성 물질인 스크르디닌 성분은 신진대사를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증진된 신진대사는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때문에 마늘은 급격한 온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을 환절기에 탁월한 음식입니다.

‘신의 과일’이라고도 불리는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면역력 강화 식품이자 가을 제철 음식입니다. 새콤달콤한 블루베리 속에는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인 안토시아닌을 제거하는 영양소가 가득하데요. 하루에 130g 내외, 종이컵 1개 분량 정도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꾸준히 섭취할 경우, 유해 콜레스테롤이 배출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높아져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거트와 좋은 궁합을 자랑해 함께 먹을 경우 장 건강을 돕고 비타민E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을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더욱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가을철 건강 관리법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으로, 풍성한 가을을 더 여유롭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머>

장인어른 백

목사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말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지 않아도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의 말이 엉뚱해서 의아한 눈빛으로 그에게 물었다.

“아니, 장인어른이 누구기에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아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겠지요.”

뭘 도와줄까?

목사님께서 어느 집 앞을 지나가다가 키가 작은 아이가 제 키보다 훨씬 높이 달려 있는 초인종을 누르려고 꺾꺾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보다 못한 그는 우아한 품으로 아이를 안아 올려 초인종을 아주 길게 누르게 해 주었다.

그러고는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이제 또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꼬마 신사님?"

그러자 아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제 빨리 도망가야 돼요."



목사님의 충고

결혼 20년차인 여자가 남편의 애정이 식은 것 같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남편에게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라고 독촉했다.

남편은 그 말을 따랐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아내를 번쩍 안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놀란 여자는 “목사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

“당신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시더군요.”

감동을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자고 있는 두 아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속으로 뛰어 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 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워 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희생 때문에 큰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 갔습니다.

수석졸업을 하게 된 큰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눈에 수위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같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워 아들은 수위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라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큰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어머니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런 모습을 발견한 둘째아들이 절룩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큰소리로 부르며 달려 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졸업식장 귀빈석 한가운데 자리에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빈들이 수근거리자 어머니는 몸들바를 몰랐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둘째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르키며 자신을 불속에서 구해내고 구걸해서 공부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설명했고, 그제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아들은 대기업 대표의 사위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큰아들은 대기업 입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들 둘을 불속에서 구해내고 구걸을 하면서 까지 아들을 공부 시키신 분!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이가 바로 우리들의 위대하신 어머니님 이십니다.



돌아보니.....

박기숙 집사

치열한 여름 한 낮을 내리쬐던 태양이 물러가고
대지가 식은 풀 숲
정적을 깨뜨리고
뜨거운 계절이 지났음을 알리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합니다.
마치 삶이 치열했던 다윗의 찬양처럼~

돌아보니.....

참 멀리도 왔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의 그 때를 지나고
신앙의 첫 걸음이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속되고 열매 맺기까지
힘 없이 달려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섭리를 어길 수 없듯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거부하지 않으며
오늘도 주님 손잡고 일어섭니다.

푸른 나무를마다
이 계절의 열매들이 익어가듯이
나의 삶에도
주님 사랑으로 자라난 소망의 열매들이
풍성히 익어가길 원합니다.

◎이달의 교회소식

- 1. 집사1회 헌신예배 / 10월 2일 p.m 7:30
- 2. 야외예배 / 10월 9일 a.m 10:00~p.m 5:00
- 3. 교회창립 초청총동원예배 / 10월 16일 a.m 11:00
만찬 / p.m 4:30
- 4. 권찰회 헌신예배 / 10월 23일 p.m 7:30

◎ 공지사항

- 1. 10월생활실천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 2. 가을대심방 / 10월 31일~11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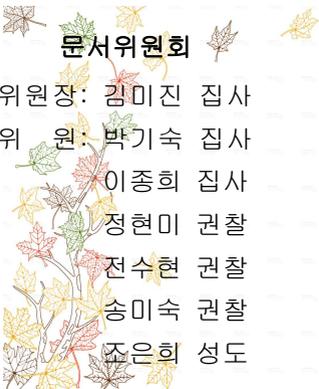
◎ 이달의 교우소식

- 1. 해외여행 / 목사님부부 - 10월 17일~21일 : 총서지방회 형제회
- 2. 결혼식 / 박두식청년 - 10월 29일 오후2시, 설악웨딩타운 2층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 위원장: 김미진 집사
- 위 원: 박기숙 집사
- 이종희 집사
- 정현미 권찰
- 전수현 권찰
- 송미숙 권찰
- 조은희 성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